

#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nd Coping Behaviors on Parent-Related Stress in School Aged Children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민 하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 수 유 안 진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for Better Living, Seoul National Univ.

*Tranning Researcher* : Ha Young, Min

Dept. of Child & Family,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An Jin, Yoo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nd children's coping behaviors with parent-related problems on parent-related stress. The subjects were 234 children composed of 115 3rd-graders and 119 6th-graders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121 males and 113 females). Statistical techniques were means, Percentages, Scheffé 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related stress with respect to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nd coping behaviors of childrens such as passive, avoidant, and aggressive coping.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hen childr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s being less supportive and children more aggressively coped with parent-related problems, parent-related stress increased in level.
- 2) Among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nd pasive, avoid, aggressive coping behavior,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nd passive cop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parent-related stress. Perceived parental behavior was much more predictor of parent-related stress than the passive coping behavior.

## I. 서론

최근 정신의학, 간호학, 심리학 또는 아동학 등에서 아동의 누적된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복지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되면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미현·유안진, 1996; 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Compas, 1987). 그러나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최근 점증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한 스트레스 연구는 미흡할 뿐 아니라 연구방향에 있어 다음과 같은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아동관련 스트레스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설명변수를 파악하기 보다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아동의 행동문제 또는 우울 등 아동의 적응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가를 밝히는 데(한미현·유안진, 1996; Compas, 1987; Dubow et al., 1991)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적응과 관련하여 아동의 스트레스가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하는 연구자료는 점증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구체적 자료는 부족한 형편이다. 둘째,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유발원에 따라 부모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 또는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민하영·유안진, 1998b; 한미현·유안진, 1995; Spirito, Stark, Grace & Stamoulis, 1991)되고 있다.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유발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은 각 스트레스 영역마다 스트레스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변수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관련 선행연구들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특정 영역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다루기 보다 다양한 스트레스를 총체적으로 취급(신은영·김경연, 1996; 한미현·유안진, 1996)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특정 영역의 스트레스-예를 들어 경제적 스트

레스(한미현, 1993; Lempers, Clark-Lempers & Simon, 1989)나 또래 관련 스트레스(도현심, 1996)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및 정보가 취약한 형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 사회적 적응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보다 특정 영역의 스트레스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현실적으로 더욱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는, 대체로 아동의 성격이나 기질 등 아동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신은영·김경연, 1996; Garnezy, 1991)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려 노력했다. 따라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아동의 둘러싼 환경적 요인(도현심, 1996; 한미현, 1993;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려는 연구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유발됨(Lazarus & Folkman, 1984)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할 변수구명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변수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환경변수로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으로 부터의 주요 요구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근원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스트레스를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관련 스트레스 연구의 일반적 경향성을 고려해보면,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는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보다 특정 영역별로 스트레스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특정 영역의 스트레스를 설명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변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총체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음(민하영·유안진, 1998b; 한미현·유안진, 1995)을 고려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변수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부모관련 문제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도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 의해 중재됨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구체적인 스트레스 경험의 유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Sorensen, 1993)고 한다. 따라서 아동이 부모에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부모와 관련된 문제상황에서 아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대처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대처행동과 부모-관련 스트레스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대처행동이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은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부모 및 부모교육 관련 실무자 그리고 아동관련 종사자에게 실용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현대 사회의 아동은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주변환경으로 인해 많은 성장압력과 성취압력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다(Elkind, 1981).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부터 6학년 시기의 학령기 아동은 체중과 신장의 양적 변화와 신체 기능상의 질적 향상을 경험하며, 2차적 성장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와 학교로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장하며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획득, 수행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하는 등 사회적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발전된 새로운 인지체계의 구축 및 상향된 학습능력의 성취를 요구받는 등 인지적 면에서 상당히 빠른 질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렇듯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면에서 빠른 발달과 발달단계의 질적인 전이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애 어떤 시기보다 많은 변화와 적응을 요구받으며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다. 스트레스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환경의 요구로부터 인지하는 위협(Folkman & Lazarus, 1984)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정서상태로, 아동이 위협이라 인지된 환경으로 부터 경험하는 불안, 두려움, 슬픔, 짜증, 분노 등의 불쾌한 정서를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민하영과 유안진(1998b)은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한 스트레스 요인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령기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부모관련 스트레스,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 친구갈등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로 구분했다. 그리고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스트레스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5 가지 스트레스 영역중 아동이 경험하는 전체 스트레스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은 부모관련 스트레스 영역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부모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지적인 Elkind(198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더불어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가운데 부모-관련 스트레스 영역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2.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과 부모-관련 스트레스

#### 1)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관련 스트레스와의 관계

· 일상의 반복된 경험을 통한 누적된 스트레스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 설명 (Carson, Swanson, Cooney, Guillum, & Cuningham, 1992)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발원인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모는 양육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사회적 요구를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요구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지각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주요 스트레스원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박영애, 1995; Lempers, Clark-Lempers & Simon, 1989)를 고려해볼 때, 아동의 심리, 사회적 복지 및 적응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은 지지적 차원으로 대표될 수 있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란 부모의 양육적 또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에게 수용되고 승인받고 있다는 확신을 아동 스스로가 갖게끔 해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의미한다(Cohn, Patterson, & Christophoulous, 1991).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 및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지지적이지 못한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로움이나, 문제행동 또는 우울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도현심, 1996; 한미현, 1995; Cohn et al, 1991)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낮은 지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누적적 스트레스의 주요 유발원임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관련시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됨을 생각할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대변되어질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주요 설명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관련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아동의 대처행동과 부모-관련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대처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처행동의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리적 적응을 중재한다(Folkman,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고 한다. 그렇다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일반적인 대처행동은 현재 부모에 대한 심리적 적응상태라 할 수 있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대처행동이란 환경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Kliewer, 1991)으로 스트레스의 성공적인 해결을 가져다주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동의 대처행동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증가시킬 위험성도 있다(Altshuler & Ruble, 1989). 성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접근하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중심적 또는 접근적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사건을 회피 또는 무시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려 노력하는 정서 중심적 또는 회피적 대처행동보다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고(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Folkman et al, 1986; Holahan & Moos, 1991) 있다. 이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대처행동보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처행동이 스트레스의 완화나 감소에 좀 더 유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시사는 부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아동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관련변수로써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게 한다. 즉 부모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이라 추측된다. 반면 부모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발된 부정적 감정만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와 같이 범주별 대처행동이 지니는 심리적 효용성간의 관계를 토대로 부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아동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대처행동이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라고 가정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증 연구가 요구된다.

### 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과 부모-관련 스트레스

Lazarus와 Folkman 등은 대처행동이 직면한 상황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영향받는다 보고(Folkman et al., 1986; Lazarus & Folkman, 1984) 있다.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높은 통제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노력하는 문제 중심적인 또는 접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지만, 통제할 수 없거나 또는 통제감이 낮게 지각되는 상황에서는 정서 중심적인 또는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의 통제감에 따라 대처행동을 변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도 긍정적이라고 지적(Compas et al., 1988)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 역량감 등 아동의 내적 통제감에 영향을 미치기(공인숙, 1989) 때문에, 대처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처행동과 결부되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몇몇 연구(Hardy et al., 1993; McIntyre & Dusek, 1995)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부모의 양육행동 및 대처행동을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대처행동간 관계가 부모에 대한 심리적 적응 상태인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중산층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남녀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것은 부모-관련 영역의 스트레스인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사이 또는 3학년과 5학년 사이에 연령차가 없다는 선행연구(신은영·김경연, 1996; 한미현·유안진, 1996)를 토대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대표하는데 무리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 참여한 아동 중 3학년은 115명(49.1%), 6학년은 119명(50.9%)이었다. 이중 남자는 121명(51.7%), 여자는 113(48.3%)였다. 부모의 월평균 수준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14명(6%), 100-300만원 미만인 166명(71.0%), 300만원 이상이 43명(18.4%)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아동의 대부분이 중류 정도의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아동용 질문지로 질문지는 1)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 2)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처행동을 묻는 문항 그리고 3)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측정은 민하영과 유안진(1998b)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관련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아동의 대처행동 측정은 민하영과 유안진(1998a)이 개발한 40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이용하였다.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지난 3개월 동안 매우 슬프거나 괴롭거나 짜증나게 했던 생활 사건들

에 대해 각 문항에 제시된 예문의 대처행동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0개의 문항은 1)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부모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방안을 생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인지적, 행동적 행위를 기술하고 있는 9개의 적극적 대처행동 문항 2) 자신의 감정을 혼자서 조용히 표현하거나 소망적 또는 환상적 사고 등을 통해 부모로부터 유발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는 인지적, 행동적 행위를 기술하고 있는 11개의 소극적 대처행동 문항 3) 부모로부터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의 의미를 최소화시켜 생각하거나 수용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직접적 해결을 회피하려는 인지적, 행동적 행위를 나타내는 9개의 회피적 대처행동 문항 4)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며 부모로부터 유발된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에 관해 탐색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위로받으려는 인지적, 행동적 행위를 기술하고 있는 5개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행동 문항 5)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유발원인 부모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인지적, 행동적 행위를 나타내는 6개의 공격적 대처행동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대처행동에 관한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Lempers, Clark-Lempers 그리고 Simon(1989)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행동질문지, 공인숙(1989)의 부모의 온정과 통제의 양육행동 척도,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 등을 고려하여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측정할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작성하였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주관적 지각성향이 다르며 주관적 지각이 행동 및 반응을 결정짓는 주요 동인이라는 시각(Rohner, 1986)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23개 문항에 대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 검증을 통해 2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실시된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3이하인 1개 문항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온정 지향적 양육행동을 묻는 14개 문항과 거부 지향적 양육행동을 묻는 8개 문항이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거부 지향적 양육행동 문항은 점수계산시 역산 처리하여 점수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중 3개 학교를 유의표집한 후, 각 학교에서 임의선정된 3학년과 6학년 아동에게 배부되었다. 아동은 연구자나 담임교사의 질문지에 관한 응답요령과 지시 사항을 지도받은 후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었다. 조사결과 회수된 질문지는 248부였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13부를 제외한 23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1)인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변량분석 및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2)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대처행동이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 행동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을 유형별로 구분해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근거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높이 지각하는 집단과 낮게 지각하는 집단, 그리고 각 범주별 대처행동 사용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 후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 변수의 주효과만 의미있게 나타났다.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의 공격적 대처행동은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주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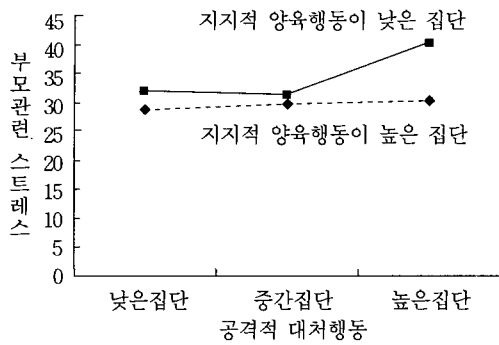
<표 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범주별 대처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최소, 최대값.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모의 양육태도	65.09	10.11	38	88
적극적 대처행동	8.4	5.17	00	24
소극적 대처행동	10.65	6.35	00	28
회피적 대처행동	7.03	4.72	00	27
공격적 대처행동	4.69	3.84	00	16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행동	3.24	2.80	00	15

<표 2>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에 따른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값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행동(A)	1	1161.64	1161.64	16.01***
	적극적 대처행동(B)	2	140.08	70.04	.97
	A×B	2	118.93	59.47	.82
	오차	157	11390.38	72.55	
	부모의 양육행동(A)	1	1178.16	1178.16	20.18***
	소극적 대처행동(B)	2	1171.89	585.95	10.04***
	A×B	2	230.94	115.47	.14
	오차	157	9162.88	58.36	
	부모의 양육행동(A)	1	1291.05	1291.05	18.75***
	회피적 대처행동(B)	2	603.36	301.68	4.38*
	A×B	2	163.49	81.75	1.19
	오차	161	11086.77	68.86	
	부모의 양육행동(A)	1	1045.86	1045.86	15.94***
	공격적 대처행동(B)	2	1055.17	527.58	8.04***
	A×B	2	503.64	251.82	3.84*
	오차	162	10625.90	65.59	
	부모의 양육행동(A)	1	1195.82	1195.82	16.58***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B)	2	186.53	93.27	1.29
	A×B	2	108.80	54.40	2.14
	오차	162	13271.91	72.1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행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 $F=3.84, p < .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을 보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 때 보다 지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와 관련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아동이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성이 클 경우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지닌 부모는 지지적인 부모에 비해 부모와 관련된 문제상황에서 아동이 공격적으로 대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부정적 반응을 아동에게 보임으로써 결국 부모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상승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동의 대처행동과 관련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대부분 주효과만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F=15.67, p < .001$ )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이지 못할 때,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주효과를 나타내는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 중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의 하위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함께 Scheffé 검증

〈표 3〉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관련 스트레스
지지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 (N=82)	28.55
지지적 양육행동이 낮은 집단 (N=89)	33.71
F값	15.67***

주 1) \*\*\*  $p < .001$

주 2) 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육행동평균±(표준편차×0.2)를 중심으로 지지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을 하였다. 〈표 4〉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소극적( $F=9.80, p < .001$ ), 회피적( $F=4.70, p < .01$ ), 공격적 대처행동( $F=6.95, p < .001$ )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은 이들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하는 아동에 비해,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관련한 문제상황에서, 울음이나 낙서, 혼잣말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외부로 발산하거나, 절대적 힘을 통해 문제해결을 소망하는 등의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 경우,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로 그 상황을 수용하거나 인내하는 등의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부모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부모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누적된 문제와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부모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제해결 보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려는 정서 중심적인 또는 회피적인 대처행동이 부적인 심리적 적응과 관련있다는 선행연구(Compas et al., 1988)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감정에 대처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범주별 아동의 대처행동		빈도	부모-관련 스트레스 평균	F 값	Scheffé
소극적 대처행동	높은집단	66	34.14	9.80***	a
	중간집단	73	31.74		a
	낮은집단	74	28.07		b
회피적 대처행동	높은집단	56	34.14	4.70**	a
	중간집단	95	31.49		a
	낮은집단	66	29.33		b
공격적 대처행동	높은집단	57	35.25	6.95***	a
	중간집단	89	30.88		b
	낮은집단	72	29.86		b

1) \*\*\*  $p < .001$

2) 아동의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은 각각의 대처행동평균수(표준편차×0.5)를 중심으로 대처행동 사용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습.

3)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

2. 연구문제 2)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대처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을 대상으로, 부모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5〉에서 보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소극적 대처행동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수는 부모에게 느끼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2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부모의 양육행동( $\beta = -.37$ )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우선 예측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이지 못하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것은 부모로 부터 기대하는 아동의 심리적 욕구와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지적이지 못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극적 대처행동( $\beta = .27$ )은 부모의 양육행동보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예측 및 설명력은 떨어지지만 아동이 사용하는 범주별 대처행동 가운데 부모-관련

〈표 5〉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범주별 대처행동의 중회귀 분석 (N=177)

독립변수	부모-관련 스트레스 b	( $\beta$ )
부모의 양육행동	-.30	(-.37)***
회피적 대처행동	.01	(.03)
공격적 대처행동	.27	(.13)
상수	45.35	
R <sup>2</sup>	.27	
adjusted R <sup>2</sup>	.25	

주 1) b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주 2) \*\*\*  $p < .001$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대처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표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Osborne & Fincham, 1994)에서, 소극적 대처행동은 부모와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된 갈등표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극적 대처행동 성향은 부모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누적시키고 그로 인해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이라 해석된다.

## V. 결론 및 제언

아동의 심리, 정서적 적응의 주요 예측변수인 아동의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설명변수를 탐색하고자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234명을 대상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이지 못할 때, 그리고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클 때 높아진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한 공격적 대처행동은,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범주별 대처행동간 상호작용에 의해 전반적으로 영향받지 않지만, 부모의 양육행동 및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에 의해 각각 영향받고 있다. 이는 지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 강화 및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소극적, 회피적, 또는 공격적 대처행동의 약화나 통제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 및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은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다. 한편 범주별 대처행동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 대처행동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완화나 증재과정에서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범주별 대처행동 중 소극적 대처행동의 특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동의 발달 및 적응의 주요 예측변수로 알려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설명할 변수를 규명하려는 이 연구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의 주요 설명변수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와의 문제해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동의 범주별 대처행동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첫째,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변수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부모-관련 스트레스만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명변수만을 부분적으로 규명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또는 학업문제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대상으로 이를 설명할 구체적인 변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수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대처행동만을 다루었으나 아동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성격 고집관념(Kuczen, 1987)이나 아동의 기질(Garmezy, 1991) 등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환경적 변수를 추가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나 학부모 대상 교육 관계자들에게 학령기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증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 ■ 참고문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안가정학회지*, 34 (6) 1-12.
- 3) 민하영, 유안진(1998a).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 *대안가정학회지*, 36 (7), 83-96
- 4) 민하영, 유안진(1998b).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 (2), 77-96
- 5)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신은영 · 김경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 (4), 33-48.
- 7) 한미현 (1993). 가정의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 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2), 182-193.
- 8) 한미현 · 유안진 (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 (4), 49-64.
- 9) 한미현 ·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 (1), 173-188.
- 10) Altshuler, J. L., & Ruble, D. N.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 1337-1349.
- 11) Carson, D. K., Swanson, D. M., Cooney, M. H., Gillum, B. J., & Cuninghame, D. (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s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hild Study Journal*, 22, 273-302.
- 12)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3), 405-411.
- 13)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 of Social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14)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15)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16)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17) Elkind, D. (1981). *The hurried child*. MA: Addison-Wesley.
- 18)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 459-466.
- 19)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20) Holahan, C. J., & Moos, R. H. (1991). Life stressors, resistance factors, and psychological health: An extension of the stress-resistance paradigm. *J. of Abnormal Psychology*, 100, 31-38.
- 21) Kliev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A type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89-697.
- 22) Kuczen, B. (1987). *Childhood Stress: How to raise a healthier, happier child*. NY: Arthur Pine Associates, Inc.
- 23)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24)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25) McIntyre, J. G. & Dusek, J. B. (1995).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and styles of coping. *J. of Youth and Adolescence*, 24 (4), 499-509.
- 26) Osborne, L. N., & Fincham, F. D. (1994).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D. D. Cahn (Ed.), *Conflict in personal relationship*(pp.117-1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
- 27) Rohner, R. R.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CA: Sage Pub. Inc.
- 28) Spirito, A., Stark, L. J., Grace, N., & Stamoulis, D.

(1991). Common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Reported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 of  
Youth and Adolescence*, 20 (5) 531-544.

29) Sorensen, E. L. (1993). *Children's stress and  
coping: A family perspective*. NY: The Gilford  
press.